

모깃불에 그을린 별들이 하는 이야기

권오분
자유기고가

화 초처럼 찾길 가에 심어놓은 밀들이 영글어가고 있는 것을 보았다. ‘칭보리 축제’라는 여행사의 현수막을 보면서 우리의 생명줄이던 농산물들이 화초가 되고 관광 상품이 되는 세상이니 좋은 세상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옛 어른들이 보시면 나무람직한 일이다.

땀벌 아래서 보리타작, 밀타작을 할 때 까끄라기가 자꾸만 땀에 뒤엉켜 달라붙는 것이 따갑고 고생스럽던 생각이 너무 선연해서 냉방이 잘된 시원한 승용차 안에서 밀 이삭을 보고 있는 지금의 내 상황에 감사를 드렸다. 여름날 한낮에 보리와 밀 타작을 해본 적이 없는 우리의 후세대는 고생이니 행복이니 하는 말을 왜 밀 포기예다 연결시키는지 알지도 못할 것이다. 타작을 끝내고 저녁나절 강물에 뛰어들 때의 날아갈 듯 상쾌한 기분은 아무리 유려한 문장으로 설명을 해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달도 없는 그믐밤이면 하늘에 별들이 얼마나 쏟아질 듯 많았는가. 물속에서 배영을 하며 떠 있으면 마치 하늘을 나는 커다란 새가 된 것 같은 착각이 들곤 했었다. 내가 배영을 좋아하는 이유는 하늘을 온전히 내 것으로 삼을 수 있을뿐더러 숨 쉬기가 아주 편안했기 때문이다. 남한강 상류 근처에서 자랐기 때문에 물놀이를 유난히 즐기는 편이고 수영도 잘하지만, 속도를 내는 일보다는 물에 가만히 떠 있기를 좋아한다.

내 어릴 적, 낮에는 파란 하늘에 흐르는 구름을 보고 밤에는 달을 보거나 별들을 보며 여름날을 보냈다. 서울에서도 달이 변함없이 뜨고 지는 모습을 보며 살아가지만 별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어찌다 불빛이 없는 산속에서 그믐을 보낼 때 하늘을 보면 여전히 별들이 가득하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안도감을 느낀다.

물놀이를 하면 쉬이 배가 고파지는데도 물 위에 누워서 별자리들을 찾아내느라 “조금만, 조금만...” 하다가 허기가 저서야 집으로 돌아오던 어린 시절. 보리 까끄라기나 쭉대를 쌓아놓고 모깃불을 피운 마당에 들어서면 매캐한 연기 냄새에 향긋한 쭉 냄새가 어찌나 마음을 편안케 하던지 그때 가슴에 스며들던 평안을 잊을 수가 없다.

호박잎을 깔고 고추장과 햇밀가루를 되직하게 반죽한 것에 풋고추, 깻잎이나 붉은 자소엽을 썰어 넣고 찌서 식힌 장떡은 쫄깃하고 맛있는 여름날의 별미였다. 갓 빵아온 밀가루로 만든 국수 가락에 햇감자를 썰어 넣고 푹 삶은 칼국수와 함께 매콤짹짹하고 쫄깃한 장떡을 먹던 그때의 맛은 평생 잊을 수 없다고, 고향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여름날 밤에 떡을 감고 멍석에 앉아서 먹던 우리 집 별미 이야기를 한다.

겉밀가루와 속밀가루를 따로 구분해서 빵아오던 동네 기계 방앗간(사람들은 그렇게 불렀다). 밀가루를 뽀얗게 뒤집어쓰고 눈만 반짝거리던 방앗간 아저씨들. 샅을 내고 방아를 빵아왔지만 그 아저씨들에게 풋고추와 애호박을 썰어 넣고 방금 빵은 밀가루로 빈대떡을 큼직하게 부쳐 호박잎에 싸서 가져다주시게 했던 어머니의 큰손. 그런 심부름을 마다 않고 신나게 뛰어다닌 덕분에 나는 이렇게 먹을거리에 관한 이야기를 쓰고, 책을 몇 권 내기도 하고, 여기 저기 방송에서 심 없이 얘기를 하고 있다.

올만에 몇 포기 심어놓은 호박 넝쿨에서 호박보다 호박잎을 더 애용하는 것은 그때 배운 것이다. 그릇에 담아서 음식을 나누어주면 받는 사람들이 빈 그릇 돌려주기가 부담스러울 거라는 엄마의 생각을 이제는 알 것 같아서 나 역시 호박잎 접시를 늘 애용한다. 정답고, 친환경적이고, 설거지할 필요가 없으니 편하고, 예쁘고, 넉넉해 보이고... 나의 호박잎 예찬은 언제나 너무 길어져서 탈이다. 버리기가 아까워 된장찌개에 넣어 먹었다는 얘기를 들으면 통지표에 몽땅 '수'를 받았을 때처럼 기쁘고 설렌다.

추억이 추억으로만 남아 있으면 그 행복의 크기가 별것 아닐 것이다. 예전처럼 타작해서 빵은 우리 밀이 아니더라도 나는 칼국수를 자주 만들어 먹는 편이다. 뒷밭에 몇 포기 심어놓은 고추랑 잡초처럼 마당 여기저기에서 자라는 자소엽을 송송 썰어 넣고 고추장떡을 만들어 식혀 쫄깃해지면 뜨거운 칼국수랑 함께 먹으며 무수한 별들이 밤하늘 가득 반짝이던 어릴 적 고향의 여름밤을 생각한다. 고향 마을은 충주댐이 생기면서 영원히 물속에 잠겨버리고 말았지만 하늘의 별들은 아직도 그대로여서 제 가슴속의 추억들을 서로 소곤거리며 얘기할 거라고 믿고 산다. 그때 우리 집 칼국수와 장떡, 삶은 감자를 먹던 새댁들이 지금은 모두 할머니가 되었고 더러는 돌아가신 분들도 있어서 세월이 얼마나 빠르게 흐르는지를 실감하곤 한다. 바로 엇그제 일처럼 생생한 기억들이 어느새 50년이 훌쩍 넘는 일이 되었으니...

사람들은 요즘 음식 맛이 예전 같지 않다고, 어릴 적 먹던 것처럼 구수한 맛이 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는 아마도 예전보다 먹을거리가 다양해지고 생활이 넉넉해진 것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싶다. 나는 지금도 김치전, 애호박전, 파전 등을 자주 부쳐 먹는데 그럴 때면 이웃을 부르거나 호박잎에 싸서 돌리기도 한다. 서울 한복판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도 쉽지 않다고들 하지만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와서인지 일상이 되었다. 이로 인해 행복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 정말 다행이다. 나에게서는 별스러운 것 없는 일상이 누군가에게 새롭고 아름답고 따스하게 느껴진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또 어디 있겠는가.

쏟아질 듯이 무수한 별을 보려면 멀리 산속으로 나들이를 해야 하니 조금 번거로울 뿐이다. 웬만한 별자리나 달님은 마당에 나오면 언제나 볼 수 있기 때문에 서울 하늘을 이고 살면서도 마음은 언제나 수십 년 전 엄마가 밀어서 삶아 주시던 칼국수나 밀전병, 삶은 감자와 고구마에서 떠나지 않은 채 여전히 누리며 살고 있다. 더 솔직히 말하면 그때의 밀가루보다 지금의 밀가루가 더 찰지고, 기름도 넉넉히 쓰기 때문에 내가 만든 것이 더 맛있다고 생각한다. 돌아가신 엄마가 아시면 서운해 하실까?

고향에서 보았던 별자리나 달이 서울에서도 똑같이 보인다는 게 아직도 신기하기만 하니 철이 덜 든 것 같지만, 그 때문에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살고 있으니 이 또한 다행한 일이 아닐는지.

